

‘의료대란’ 2차 병원 병목현상 시작

의료진 부족한 대학병원들
경증환자 2차 병원으로 이동
장기화 땀 수용 불가 우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21일 오전, 조선대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환자들이 구급차로 실려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1일, 광주·전남지역 2차 병원들의 병목현상이 시작됐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탓에 의료진이 부족한 3차 병원들이 경증환자 대부분을 2차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병원들은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광주·전남 2차 병원 쏠림 우려 = 광주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를 연속 무단결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서광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 첨단종합병원, KS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수련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입원환자 줄이기에 나섰다.

중환자실·응급실·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반병실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병실 가동률을 50%대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하루종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앞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환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거나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2차 병원들의 이야기다. 이미 일부 2차 병원에서는 입원실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집단병원 관계자는 "24시간 중환자실도 가득 차 있고, 평소에도 기본 환자수가 많은데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된다면 중환자실에서도 환자들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KS병원은 이날 평소보다

10배 많은 환자를 받았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넘어온 환자들로 주차장이 부족해 병원 앞으로 수십대의 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KS병원 관계자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원래 환자가 많이 없어 오전 손님이 3~4명에 그치는데, 오늘은 수십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 여부를 물었다"며 "우리 병원은 심혈관 질환을 주로 다루는데,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몰려 응급수술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 돌봄 환자 없다...간병인 일자리 잃어 =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줄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면서 간병인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

40여명의 간병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광주지역 한 간병인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간병 문의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간병인들이 내는 수수료가 줄어 협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소속된 간병인들이 '의료대란 이

후로 매일 전화와서 왜 간병환자와 매칭을 해주지 않느냐고 묻지만 입원 환자가 없으니 일자리 연결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면허세와 가계세 등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의료과업 이후 수입이 푹 끊겨버려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고령의 환자를 간병인이 필요없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는 하루 7000원 수수료도 받지 못해 파란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여명이 소속된 다른 간병인 협회도 "하루 7건씩 꾸준히 들어오던 간병인 즉 수요가 아예 사라져 0건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의료과업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장기화될까 두렵다"고 했다.

전남대병원 로비에서 만난 60대 여성 간병인은 "평소보다 입원 병상도 많이 비었고 새로운 환자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환자가 안 들어오면 간병인들은 곤란하다. 환자가 없으면 간병인도 없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김난도 교수 김정은 교수 유현준 교수 서경석 MC 심용환 소장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2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2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25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택·이용빈 2인 경선

공관위, 4차 경선지역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광주 광산갑 지역구를 비롯한 전국 18개 지역구에 대해 단수 공천 및 경선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총 1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수공천 지역은 10곳, 경선 지역은 8곳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광주 광산갑 1곳만

경선지역으로 발표됐다.

두 명이 공천을 신청했음에도, 그동안 경선지역으로 발표되지 않아 수 많은 역측이 나돌았던 광주 광산갑 지역구는 결국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와 이용빈 국회의원이 2인 경선으로 맞붙는다. 두 후보 모두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로써 광주지역은 광주 서구갑 선거구와 중앙당이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광주 서구를 2곳만이 공천심사가 남았으며, 전남은 10개 선거구 중 이날까지만 한 곳도 발표되지 않았다.

민주당 공관위는 또 이날 김병욱(경기 성남분당

을)·박재호(부산남동)·박정(경기 파주을)·이해식(서울 강동을)·전재수(부산 북강서갑·이상 재선)·이소영(경기 의왕과천·초선) 등 현역 의원 6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원의 인사가 단수공천된 4곳은 부산 남갑(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합안장녕(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이다.

경선 지역은 광주 광산갑을 포함해 서울 용산에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

산구청장이, 서울 금천은 현역 최기상 의원과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맞대결한다. 당의 힘지로 좁히는 부산 해운대와 부산 사상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지며 결선투표는 열리지 않는다. 해운대에서는 ▲윤준호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의장이, 사상에서는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각각 대결한다.

부산 중·영도에서는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벌인다.

경기 용인에서는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남양주갑에서는 임윤태 전 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의원이 각각 격돌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5·18조사위, 시민 의견 수렴에 반발 확산 ▶7면
- 손흥민-이강인, 런던서 '아름다운 화해' ▶19면
- 팔도 핫플레이스 - 포항길을 거닐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학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치료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 아토피 관련 치료 프로그램
-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